

끝없이 이어지는 시립예술단체장 선정 잡음

시향 이어 7일 무용단체장 낙장 발표 각종 설 난무 국악관현악단, 교수 겸임 등의 뒷반아 위촉 지연 市·문예회관 무책임한 일처리 문제 키웠다 비난

‘바람 잘 날 없는 광주시립예술단체.’
 화려한 출발을 기약하는 새해가 밝았지만 광주시립예술단체에게는 ‘탄나라’ 이야기다. 예술감독 선임에 둘러싼 잡음이 연이어 터지면서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현 상임지휘자에 대한 단원들의 연임 반대가 표면화 되면서 표류하고 있고, 무용단과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의 경우 발표가 계속 늦어져 많은 뒷말을 낳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예술감독 선임에 맡기고 있는 광주시와 광주문예회관의 무책임하고 미숙한 일처리가 문제를 키웠다 지적이 일고 있으면서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교향악단 사태 조정위 설문 진행

광주시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조직된 조정위원회는 7일 두번째 회의를 열었다. 6명의 조정위원이 참여한 이날 자리에는 당사자인 크리스티안 루트비히 상임지휘자와 단원들이 참석,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루트비히는 “연임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며, 연임 여부도 광주시가 결정할 사항이라 시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단원들의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고, 받아들이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들은 지난해부터 루트비히 연임 반대와 관련, 성명서 발표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호두까기 인형’ 연주는 관객들에게 불만을 샀다.
 이날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청취한 조정위원회에서는 일단 시립교향악단 정기회원 등을

대상으로 지휘자의 역량과 공연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 결과를 참조할 예정이다. 또 단원 의견 개진 방안, 예술감독 선정과 평가 기준 확립 등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문 결과와 여론을 참조하고 각 조정위원들의 판단을 종합해 의견을 내겠지만 조정안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쨌든 봉합안이 나올 경우 이미 신뢰가 깨져 버린 상황에서 진행되는 연주는 지난 ‘호두까기 인형’에서 보여준듯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임이 결정되면서 단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루트비히는 현재 예술단 총단장인 광주시 행정부시장이나 시장 명의의 ‘연임’ 공문을 받은 게 아니라, 문예회관장 명의로만 공문을 받았고, 정식으로 계약서에는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다.
 조정위원회는 우선 루트비히가 지휘봉을 잡을 첫 공연이 오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늦어도 20일 전까지는 조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7일 예술감독을 발표한 광주시립무용단도 구설수에 올랐다.
 광주시는 7일 현 김유미 예술감독을 차기 감독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전행 결과 4명의 응모자 가운데 김단장과 함께 최종 심사에 올랐던 국립대 교수인 A씨가 근소한 점수차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정권자인 시장이 김단장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심사가 지난 27일 진행됐지만 문예회



시립예술단체 예술감독 선임에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용단의 경우 7일 현 김유미 단장을 예술감독으로 확정, 발표했지만 심사 후 10여일이 지난후에야 낙장 발표, 구설수에 올랐다.

관이 연말 연시 등을 이유로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로비설’ 등 수많은 ‘설’들이 쏟아졌는데 있다. 특히 시중에 심사 내용이 공공연히 흘러 다니고 공채와 관련한 각종 소문들이 퍼지면서 무용단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역시 지난해말 김광복 전남대 교수를 신임 감독으로 내정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경우도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겸직 허가서를 받아야 하지만 7일 현재까지 허가를 듣지 못해 임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문예회관측은 전남대에 겸직 동의를 요청해 둔 상태다.

문예회관 모집요강 변경 불신 자초

3개 단체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잡음이 흘러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무주무관인 광주문예회관을 성토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예회관측은 지난해 예술감독 공모 과정에서 서부터 불신을 자초했다. 공개 채용의 가장 기

본인 자격 조건과 심사 방법 등을 계속 수정하는 등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국악관현악단 공모를 진행하면서 모집 요강을 변경, ‘특정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다. 또 주 3일 근무했던 전임지휘자의 경우와 달리 갑자기 주 5일 근무를 조건으로 내세워 타 지역 유능한 인재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또 이어 진행된 무용단 관련 공모 역시 또 다시 수정 공모를 내는 등 일처리의 미숙함을 여지 없이 보여줬다.
 그밖에 국악관현악단 단장과 관련, 조례상 나와 있는 국립대 교수의 겸직 문제 역시 시의원의 지적이 잇따라 부러부러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해 연임이 확정된 광주시립국극단 윤진철 예술감독은 새 임기를 시작했으며 합창단은 지난해 공채를 진행했지만 상임지휘자를 뽑지 못해 객원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국 노동자들의 삶을 보다

‘벤 샬 전, 3월31일까지 시립미술관

1990년대 미국 노동자들의 삶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닮았을까?

경제공황기부터 냉전시기까지 미국 사회적 리얼리즘 미술의 대표작가인 ‘벤 샬(Ben Shahn·1898-1969)’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3월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벤 샬-기억하는 눈, 기록하는 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유화, 템페라화, 수채화, 드로잉, 판화 등 모두 50점이다. 국내최대규모다.

1920년대 초창기 유희작품들에서부터 1930년대 사회적 리얼리즘 시기의 작품, 1940년대 이후 상징적이고 우화적인 후기작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인 재일 교보 하정웅씨가 지난 1999년에 기증한 작품들이다.

회화는 물론 포스터 디자이너, 삽화가, 사진가 등 다방면으로 활동한 벤 샬의 예술세계는 시대에 대한 역



‘노동자에게 예방접종하는 의사’

사적 증언으로서의 미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의 미술,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미술을 특징으로 한다.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의 정체성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문의 062-613-71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장르 불문, 젊은작가들의 공간

‘두드리다’ 신년기획전 9~29일 신세계갤러리

계사년(癸巳年) 새해 광주, 전남·북 지역 신진작가 7명의 생기발달하고 역동적인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9~29일 ‘두드리다’ 신년기획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는 젊은 작가 김도연(서양화, 설치), 김혁(서양화), 박민선(서양화), 엄기준(서양화), 이선희(한국화), 이세현(사진), 이재덕(조소)씨의 작품 25점이 선보인다.

작가들은 역사적인 공간과 각자의 정체성 등을 장르와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회화, 사진, 설치 등 자신만의 표현언어로 담아냈다. 작품을 통해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는 20~30대 작가들의 시대적식을 발견할 수도 있다.

김도연씨는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절대적 공간에 노출되는 무력한 개인이라는 맥락에서 풀어냈고, 김혁씨는 풍자와 조롱으로 한국 사회의 슬직한 단면을 드러냈다.

이선희는 개인적 내러티브와 감성적 색채를 혼합해 차분한 색조와 필선으로 아련한 화면을 펼쳤고, 이세



이선희 작 ‘농아주다’

현씨는 장소를 사진이라는 공간으로 해석했다.

전시와 연계해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엄기준씨는 오는 19일, 26일 두 차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작가와 함께하는 아트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5시, 7시에는 전시 설명회도 진행된다. 문의 062-360-127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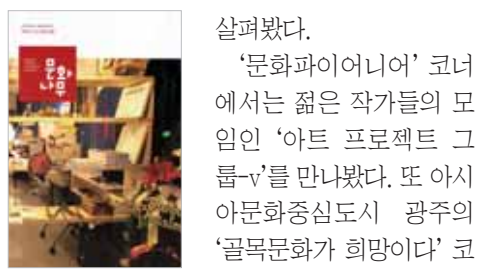
시민들과 함께했던 추억 ‘문화나무’ 겨울호

광주문화재단이 발행하는 소통문화매거진 ‘문화나무’ 겨울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나눔+사랑, 소통+교류, 난장+축제, 참여+창조’를 키워드로 2012년 시민들과 함께했던 문화예술 행사를 갈무리했다.

기획특집으로 ‘도시와 아트센터’를 통해 경기 고양시의 ‘아라뿔’, 전남 여수시의 ‘예술나무’, 부산시에 들어설 예정인 ‘오페라 하우스’를 소개하며 광주 아트센터의 현 주소를 꼬집었다.

광주를 찾은 고려인 4세 카자흐국립대학교 김계근만 교수에게 듣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민족 정체성 상실의 심각성과 대안, 문화예술을 통한 민족통합교육, 한국과의 관계 등을



살펴봤다.
 ‘문화파이어니어’ 코너에서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인 ‘아트 프로젝트 그룹-v’를 만나봤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골목문화가 희망이다’ 코너에서는 마을이 가진 근대문화에 이야기를 입힌 양림동, 다섯개 아파트가 모여 시골마을의 향기를 담은 화정동 ‘광주 문화유랑단’, 장동·동명동의 ‘카페골목’을 소개했다. 문의 062-670-743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꽃·나무... 자연 공간과 대화

황형철 첫 번째 시집 ‘바람의 겨울’ 출간

시인 황형철씨가 첫 번째 시집 ‘바람의 겨울(고요아침 퍼내)’을 출간했다.

지난 2006년 계간 ‘시광’으로 등단한 황씨는 보편적인 식물성의 언어로 개성적인 목소리를 내며, 서정성을 구축해왔다.

이번 시집에서는 ‘함구’ ‘동글기만 한 그것’ ‘봄날의 욕심’ ‘꽃이 온다’ 등 4가지 주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의 공간, 그중에서도 꽃이나 나무에 주목했다.

자연의 인간의 삶에 녹여낸 ‘숲을 지나다’, 인간의 삶과 밀착된 자연을 보여준 ‘감나무 전구’

등은 작고 연약한 것들, 사소한 삶의 단면, 따뜻한 정서를 잘 결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우주의 여행자로 살면서 만나는 매혹적인 풍경들과 기본적 대화하며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겠다”라는 것이 시인의 말이다.

황씨는 계간 ‘시와 사람’ 편집장, 예코미라센터 이사,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62)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별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or [와인 or 생맥주 1잔]씩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음식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음식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